東大新聞

玨範赫 社相 嫩 徐 人幹委 韓 宋 行輯 人 徐 韓 宋 編主 尹 太 京 部輯編長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爲所不當爲,
然後致鬱毒,
行善常吉順,
所適無悔愆.

해서안될일은 행하지 말라.
한뒤에는번민이 있나니
해야 할일은 항상 행하라.
가는곳마다 뉘우침 없다.

<法句經>

開校紀念號 목차

1面—徐總長紀念辭
2面—社說·文化價值·規準
3面—실험대학·대학의 정신과 좌표
4面—佛教의 현대적 의의
5面—佛教의 經濟觀·社會福祉思想
6面—논단·68년의 提言·회고·소식
7面—학계의 촛점
8面—축전·축전·앙케이트해설

來日의 開花를 向한 오늘의 努力은

開校68周年

創造的인 智慧로 東國建設에

總長·徐 燉 珏

존경하는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친애하는 교직원과 學生諸君과 東國人 여러분!

우리는 오늘 大東國의 예순 여덟번째 돌을 맞는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었읍니다。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紀念辭를 올리게 될 본인은 부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고하여 보면, 東國 68년의 역사는 이 민족의 현대사와 더불어 順風에 돛단듯이 順坦한 길만을 걸어온것은 아니였읍니다。도리어 민족의 受難史속에서 우리 東國은 여러가지 險峻한 역경을 겪어야 하였읍니다。

68년전 그러니까 19세기말 王朝史에는 衰亡의 징조가 농후하였고 周邊의 列强들은 韓半島의 武力侵略을 꾀하고있을 무렵, 당시 佛教界의 先覺者들은 民族의 百年大計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英才敎育을위한 敎育機關 설립에 착안하였읍니다。이리하여 탄생된것이 오늘의 大東國의 前身인 明進學校였읍니다。그후 日帝總督政治는 民族의 文化傳統을 繼承하고 啓誠하는 高等敎育은 곧 民族意識을 鼓吹하고 高揚한다고 하여 항상 彈壓의 손을 늦추지 않았읍니다。그러다가 우리 言語의 말살이란 酷烈한 文化政策은 가장 쓰라린 悲運을 東國의선배들에게 가져다 주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역경에 처하여도 자각에의한 불교적 불퇴전의 신념과, 민족의장래를 설계하는 불굴의 창조적의지를 가지고, 목전의 비운을 참고 나갔었읍니다。

1945년 8·15해방은 이민족에게 벅찬 감격을 안아다 줌과 동시, 걷잡을수 없는 혼란도 함께 가져다 주었읍니다。자유를 방종과 혼동하는데서 야기되는 사회적 혼돈과 상반되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에서 오는 정치적 불안은 민족의 앞날에 검은 구름을 던져주고 있었읍니다。그러던 중 분단된 국토의 비극이 6·25사변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동국의 캠퍼스도 피난지에서 가장 쓰라린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해방후 오늘의 東國을 위하여 獻身的노력을 경주한 여러 선배들의 피와 땀의 結晶으로 우리는 大東國의 예순 여덟번 째 돌날을 기쁨하게 맞게 된 것입니다。

東國人 여러분!

오늘 우리 東國의 주변에 東國의 비약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전연 없다고 단언할수 없읍니다。東國의 내일을 위하여 이같은 消費要素를 깨끗이 拂拭할 중대한 책임은 本人과 여러분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음을 自覺하여야 합니다。이제까지의 나를 反省하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設計를 가다듬는데 돌날의 意義는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東國의 開校기념일을 맞아, 우리 東國人도 함께 이제까지 걸어온 東國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동시에 내일의 飛躍을 위한 새로운 설계를 구상하며 구체적 實踐으로 옮길 準備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내일의 東國史는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 東國人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엄숙한 사실을 명심하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智慧와 내일을 창조하는 두가지 作業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義務를 지니고 있읍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10여년의 세월을 두고 東國의 歷史와 함께 상아오면서 고동을 같이한 敎職員의 노고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자 합니다。

東國의 앞날과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며 紀念辭를 마치고자합니다。

祝祭의 기다림에 부푼 校庭

<사진·羅宗星記者>

佛覺

佛陀는 人間을 人間아닌 絶對者 앞으로 引導도 아니고 對者 처럼 되어 보려고 애쓰는 人間的인 宗教라는 特徵이 있다。

佛陀는 人間밖에는 人間을 구원하고 幸福되게 할 絶對者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人間自身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强調하였다。

人間과 人間 사이에 있는 모든 差別을 否定하고 人間은 누구나 平等하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人間과 人間 사이에 있는 모든 差別을 否定하고 人間은 누구나 平等하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人間과 人間 사이에 있는 모든 差別을 否定하고 人間은 누구나 平等하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大乘佛教의 菩薩도 佛陀의 이러한 人間觀을 繼承하고 있다。

菩薩은 人間의 苦痛을 救援하고 人間의 幸福을 增進하기 위하여 自己의 모든 것을 犧牲하는 人間이

大學史와 우리의 反省

開校六十八周年에 부쳐

社說

동대문밖 元興寺를 빌려 呱呱聲을 울렸던 우리學府는 이제 다시 年輪을거듭하여 68주년의 盛典을 맞이하게되었다。

내외정세가 급박하여져 가고 있는 현시점에 서서 우리가 밟아왔던 校史의 자취를 되새겨보면 몰두 한大學은 그것이 하나의 世界인 콘고오드의 哲人이 『한방울의 이슬을 보아라。그속에 우주가 스며있다』는 솔롯깊은 소감인 것이다。

즉 우리의 學府가 근대적인 고 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륜은 이를 歐美先進國家에 비하여 결코 길다고 할수없으며 또 절비면이나 경영기술에 있어서 뒤져 있다는것도 부인할수는 없다。그러나 한방울의 이슬이 맺어지기까지는 므거운 햇빛영의 작용으로 지상의 수분이 증발하여 다시 적당한 온도에서 凝却되고 그것이 물체 지상으로 내려오는 무게를 갖추는등의 부대적 모든 힘이 작용되고 있는것을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學府가 존재하게된것을 결코 數3人의 構想과 정열에만 그 공을 돌리는것은 피상적인 견해일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우리學府가 개교된 60년전은 産業革命과 수에즈運河의 개통으로 앞다투어 極東으로 밀려 들어온 西歐商品經濟의 위력은 오랫동안 詩詞나 文雅的인 풍에의 세계에서 탈피못하던 우리韓半島에도 거센 革命바람을 일으켜 國脈가 朝夕으로 위기를 풍하는 시대였다。

朝鮮王朝5백년간의 극심한 彈壓밑에서 갖낳은 法統을 오로지 國泰民安의 일념으로 지켜온 信仰에 힘입어 이어오던 우리 傳統의 善智識들이 三綱의 淨財로서 신식교육기관의 설립에 뜻을 모으는 그열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學府는 존재할수 없었다。뵈 왜정36년을 통한 虐政만에서 흔내는 일시나마 閉校의 悲運을 겪기도하였으나 민족의 不滅과 矜持를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이념이 수호되었던것은 私學이라는 경영체질과 이 維持를위한 넉넉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었던것은 말할것도 없는것이었으나 이에 못지않은것은 역사와 傳統을 지닌 대학인 우리들의 學園護持에 힘입은바 컸던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우리대학이 있기까지는 寸陰을 다투며 시시각각으로 전진하는 세계와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하는 우리 國家社會의 현실, 그리고 대학에대한 사회의 興味와 대중의 교육열이 총화되고 조화를 이루어 표현된 成果이며 결코 수3人의 恣意的인 의사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무릇 한大學은 그것이 하나의 世界인 콘고오드의 哲人이 『한방울의 이슬을 보아라。그속에 우주가 스며있다』는 솔롯깊은 소감인 것이다。

즉 우리의 學府가 근대적인 고 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륜은 이를 歐美先進國家에 비하여 결코 길다고 할수없으며 또 절비면이나 경영기술에 있어서 뒤져 있다는것도 부인할수는 없다。그러나 한방울의 이슬이 맺어지기까지는 므거운 햇빛영의 작용으로 지상의 수분이 증발하여 다시 적당한 온도에서 凝却되고 그것이 물체 지상으로 내려오는 무게를 갖추는등의 부대적 모든 힘이 작용되고 있는것을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學府가 존재하게된것을 결코 數3人의 構想과 정열에만 그 공을 돌리는것은 피상적인 견해일 것이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우리대학이 있기까지는 寸陰을 다투며 시시각각으로 전진하는 세계와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하는 우리 國家社會의 현실, 그리고 대학에대한 사회의 興味와 대중의 교육열이 총화되고 조화를 이루어 표현된 成果이며 결코 수3人의 恣意的인 의사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무릇 한大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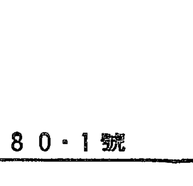
大學의 現實과 오늘의 座標

大學敎育改革과 政府의 方針

근년에 와서 大學敎育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통감한 나머지 각 대학 자체내에서, 그리고 정부당국에서 大學敎育·改革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論議와 構想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개혁안을 필두로 1967년부터 10개년 發展計劃案을 세운 이화여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延世大學校등이 그 일례이며, 文敎部로서는 1972년을 고등교육 개혁추진을 위한 硏究의 해로 정하여 그해 상반기 4개월간에 걸쳐 7백여명에 가까운 各界人士가 참여한 高等敎育改革을 위한 지역세미나를 개최하여 政策立案을 위한 의견을 집약했던 것이다. 그 결과 同年 6월27일에 大學敎育 개혁의 國家的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同年 7월에 대학 교육 改善을 위한 실험대학 신청을 요구하는 골문이 시달된바 있다.

여기에서 政府가 시달한 구체적인 改革案을 보기에 앞서 정부가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國家的 기본방향과 推進方針을 알아보기로 한다. 閔문교부장관은 작년 8월14일 儒城에서 개최된 敎育改革 세미나에서 『大學의 수는 늘어도 옳게 일할수 있는 일꾼은 배출되지 못했고, 대학의 학점수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많으나 敎育의 質은 낮고, 교과목 수는 많아도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른바 있어도 이를 실제로 社會福祉와 國家發展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고서 文敎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정하여 보다 질이 높고, 보다 能率的이고 보다 自律的이며 보다 특성있는 대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교육을 改革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기본적인 개혁목적을 천명한바 있다.

그것은 첫째, 대학교육의 質的向上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둘째, 大學敎育의 運營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非效率的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계열별·단과대학별 정원제로 전환하여, 학생정원 管理制度를 개선하고② 현행 1백60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제도를 1백40학점 이상으로 하여 專攻分野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시도하고, ③副專攻制의 신설등으로 국가사회에의 貢獻度를 높이도록 한다는 3가지 방침을 제시한바 있다.



李 培 昌
<文理大學長·實驗大學운영위교육문과위원장>

實驗大學은 「標本·先導」 學校 意味

文敎部는 이러한 광범위한 대학교육에 종래한 영향을 가져옴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개혁의 옹의가 있고, 준비가 갖추어진 대학으로 實驗대학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대학이란 그것이 개혁事業을 실험해보고서 잘만되면 그만 둘 수도 있는 대학이란 뜻이 아니라, 「標本학교」(Model School)의 뜻을 「先導학교」(pilot School)의 뜻으로 쓰인말로서 개혁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餘他대학의 선도적역할을하는 대학의 뜻이다.

1973년에 실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高麗, 延世, 梨花, 西江, 慶心, 崇田, 中央, 全南, 仁荷, 蔚山工大 등 10개대학이며 금년에 다시 한국外國語대학등 6개대학이 추가로 선정되어 文敎部가 구상하는 테두리안에서 자율적이고 폭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개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본東國대학교에서는 徐총장의 지시에따라 1974년도부터 실시를 목적으로 실험대학計劃案을 작성한바있으나 이미 발힌 실험대학의 선정과물 충분히 연구검토할 필요성과 교내與件의 成熟을 기다리기 위하여 1975년도의 실시를 목적으로 그동안 실험대학 운영위원회를 조직,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系列別募集, 卒業學點引下, 副專攻制等 三大改革

다음으로 교육개혁의 주체적인 내용을 각대학의 실시 현황과 결들여서 말해보기로 한다. 문교부에서는 본래 系列別 입학과 종업학점引下 및 副專攻制실시의 3대 대학혁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전부를 희망신청하여야하며 그중 1, 또는 2개사업만 신청한수있음을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3가지 실험내용의 동시실시에는 여러가지 어려움문제가 수반하였기 때문에 실시단계에 이르러 延世大는 1973년도부터 전교적으로 1973년도부터 전교적으로 총입학점을 140학점 기준으로 140학점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할 뿐이다. 지금 국내에서 전교적으로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 이화대, 성심대, 숭실대, 울산공대등이다.

系列別入學生 모집이 가장 어려운 까닭은 入學후 학생들을 학문학과에 소속시킬 때에 학생들이 인기학과에 집중되는 경향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생들은 자기의 適性보다는 社會進出과 직업선택의 편의상에 좌우되는 학교풍토가 농후하고 기존학과에는 敎授와 定員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配慮하여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학교의 체제를 유지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금년도 서울大學校 신입생을 상대로 조사한 結果 지원자 통계에의하면 50명정원의 電子工學科에 2백71명이지망을 하고 40명 定員의 國語敎育學科에 계열별 모집을 실시한 결과 1백60명이 지원하여 3시간 1학점인 경우도 있어서 1학점의 강의가 1시간 50분씩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다.

系列別 募集은 成功展望 흐려
施設강화등 先行 要件이 關鍵
改革目的 …… 質的向上·運營의 效率·自律性등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지도교수들에 의한 說得과 適性檢査 興味檢査등의 결과로서 많이 조절이 되겠지만 기존학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는 우선학과공부에 필요한 교과목수의 확보가 곤란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인내가 필요할것이다.

그렇다면 系列別모집에 있어서만은 그성공의 전망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系列別모집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先行되어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대학교육의 質的向上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둘째, 大學敎育의 運營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非效率的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계열별·단과대학별 정원제로 전환하여, 학생정원 管理制度를 개선하고② 현행 1백60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제도를 1백40학점 이상으로 하여 專攻分野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시도하고, ③副專攻制의 신설등으로 국가사회에의 貢獻度를 높이도록 한다는 3가지 방침을 제시한바 있다.

계열별모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것은 3가지 개혁사업중 계열별 모집이 가장 어려운것으로 展望되어 작대학이 신중을 기했기때문이다.

系列別모집에 있어서만은 그성공의 전망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정하여 보다 질이 높고, 보다 能率的이고 보다 自律的이며 보다 특성있는 대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교육을 改革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기본적인 개혁목적을 천명한바있다.

그것은 첫째, 대학교육의 質的向上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둘째, 大學敎育의 運營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非效率的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계열별·단과대학별 정원제로 전환하여, 학생정원 管理制度를 개선하고② 현행 1백60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제도를 1백40학점 이상으로 하여 專攻分野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시도하고, ③副專攻制의 신설등으로 국가사회에의 貢獻度를 높이도록 한다는 3가지 방침을 제시한바 있다.

實驗大學은 「標本·先導」 學校 意味

文敎部는 이러한 광범위한 대학교육에 종래한 영향을 가져옴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개혁의 옹의가 있고, 준비가 갖추어진 대학으로 實驗대학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대학이란 그것이 개혁事業을 실험해보고서 잘만되면 그만 둘 수도 있는 대학이란 뜻이 아니라, 「標本학교」(Model School)의 뜻을 「先導학교」(pilot School)의 뜻으로 쓰인말로서 개혁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餘他대학의 선도적역할을하는 대학의 뜻이다.

1973년에 실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高麗, 延世, 梨花, 西江, 慶心, 崇田, 中央, 全南, 仁荷, 蔚山工大 등 10개대학이며 금년에 다시 한국外國語대학등 6개대학이 추가로 선정되어 文敎部가 구상하는 테두리안에서 자율적이고 폭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개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본東國대학교에서는 徐총장의 지시에따라 1974년도부터 실시를 목적으로 실험대학計劃案을 작성한바있으나 이미 발힌 실험

佛敎의 現代的 理解

①緣起속의 自覺

佛敎란 무엇인가。佛敎의 참뜻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아니하면 오늘날에 어떻게 受容되고 理解될것인가가 정립되지 아니할 것이다。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불교란 緣起의 自覺이며, 慈悲의 實踐이다。緣起의 自覺이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存在는 唯一的 單獨者로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는것이다。혼히들 自我意識을 지나치게 강조이나다라고 하는것이다。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나」라고 하고보면 自存的 實體가 「오직 그것뿐」란 絶對性에 사로잡혀 自己가 생성한 본래적 위치 즉 관계된 한계를 망각하게 된다。그렇게 망각된 상태에서 어떤 원을 하려고 하므로서 본래 관계된「그 어떤 상황」을 도외시하여 일을 하려고 덤벙들므로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佛敎의 現代的 理解

睦哲宇 <佛敎大講師>

眞如의 秩序守護

自覺的 立場서 世界透視
救援하는 宗敎가 되어야

睦哲宇 <佛敎大講師>

②無我의 本質

참답게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라고 부처님은 참다운 나라고 할 수 있는것은 法의 緣起뿐이라고 하였다。더나아가서는 法의 緣起도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③三學의 實踐

간결히 표현하면 佛敎는 眞如의 智性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眞如의 智性란 불교의 근원적인 진리이다。그 智性을 지킨다고 하는것은 現存的 自我가 眞如에 참입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막연히 智性의 지킴이란 뻐스를 기다리는 차의 줄서는 것과 표현할 사기위한 순서가 아니다。「참」이 의미하는 「自覺」이며 「自覺」이란 진리가 내재하는 것이다。眞如와 相即하는 것이다。

眞如의 智性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現前的 상황에 접촉하여야 自己生命·自己生活을 알차게 하려고 하므로 無限生命의 實相의 일부분을 파괴하고 그 일부분을 파괴하는 죄악에 자기자신도 파괴된다는것을 確信하지아니하면 佛敎는 倫理的인 德目을 實踐하여 眞如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것 즉 有情的인것이 可視可用的 세계만이 受容하려고 한다。그러므로 可視의 限界나 可用의 實體가 되지 아니할때 불안이나 공포를 自己마음속에 移植하여 無明한 현실에만 얽매이게 된다。

앞서 말한 「緣起의 自覺」에의 開眼이 되는날부터 有限責任의 人間이 無限責任의 菩薩로 轉化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일먼저 佛敎에서 눈을 밝혀야하는것은 有我的인 「나」도 그만 에서 無我的인 活用으로 轉依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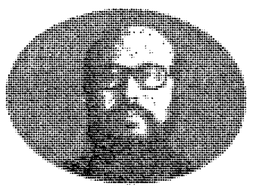
이것은 모든 實相과 我相은 不即不離한 同體임을 自覺하는 宗敎體驗의 初地이며 宇宙眞識의 開眼이다。이러한 第一義的인 파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모든것은 他者이며 나의는 無關한 存在이다。

無關한것이므로 그것이 잘못되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초래하여 이세상과 결별을 하는 극한에 가더라도 「나만이 살련」하는 관념과 사고가 일어 스스로의 구원도 남의 구원도 없다。

「不即不離」의 緣起를 自覺하는 것은 救援을 약속하는 大悲의 길이다。그러므로 同體的인 關係를 確信하지 아니하면 大悲的인 구원을 宗敎的인 측면에는 確保할 수 없는것이다。

측면에는 倫理的인 측면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佛敎를 새롭게 파악하여 보는것도 他山之石은 아닐것이다。



徐 景 洙 <佛敎大敎授>

佛敎의 人間關係論

소외된 人間 回復은 「나」의 究明에서
主從·勞使 관계등 先見之明
人間관계 적극적 善意의 相互依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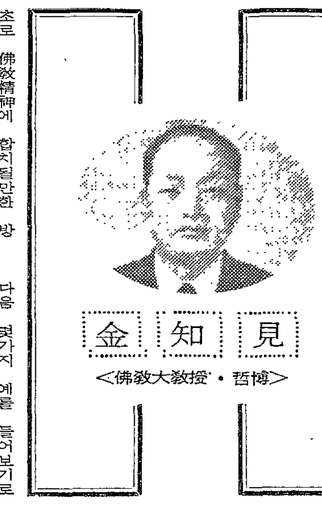
(1)男女平等의 問題

불교는 人格의 平等을 主張하는 原則에서 男女의 平等은 주장한다。부처님의 시대에 있어서는 女性의 地位를 男性보다 낮게보는 傾向이 짙었으나 부처님은 여성을 경시하는 風潮를 대하고 나섰다。四部大衆으로 形成되는 僧伽에서 女性의 地位는 比丘·比丘尼·男信徒·女信徒의

佛教의 社會·經濟觀

開校68周年과 「부처님」

佛教 教理上의 經濟觀



金知見 哲博·授教大教佛

李昌載 <佛教大教授>

佛教의 社會福祉思想

慈悲行은 곧 社會福祉思想

福田思想으로 救世濟民에

無所有는 所得·分配등 禁欲的 倫理에 바탕

佛教의 經濟原理

所有는 教團經濟原理

祝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祝

서울시청 내무국장 김찬회

서울시청 보사국장 이우영

체신부 전무과장 박영환

재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정재철

롯데제과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신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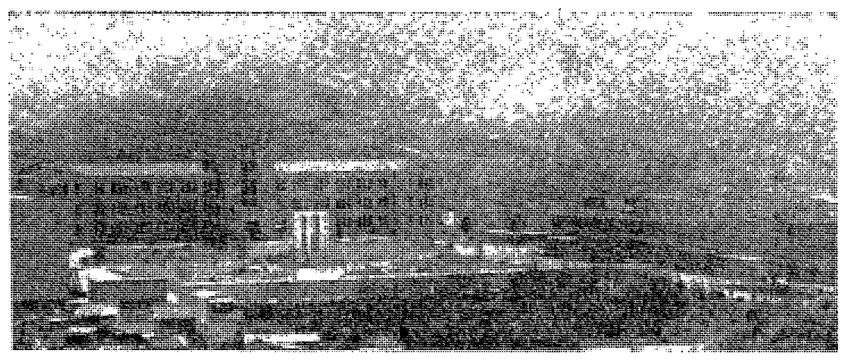
신구문화사 상무 이희찬

태성건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홍

한일은행 퇴계로지점 지점장 이석주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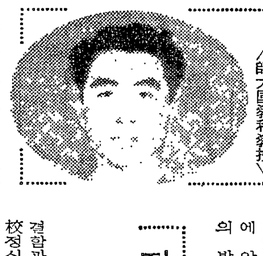
1906년, 韓國佛敎의 정신과 정통을 계승하고나아가 효과적인 新知識의 道場으로 明進學校로 설립된 본교는 中央學林 혜화전문을 거쳐 해방후 다시 東國大學으로 변모하기까지 숱한 고난과 풍파를 견디어 이제 8개학부 (교양학부포함) 40個學科와 3개의 大學院, 10개부속기관, 11個부설연구소및 부속중고, 明星女高, 金山中學, 은석국민학교등의 병설학교를 거느린 방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 大河처럼 백발치는 5천여 東國人의正義와 진리의 함성은 민족과 人類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있다. 外國의 많은 大學과 결연,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는 東大. 교수, 학생, 同門들의 苦言을 들어보기로 하자. 〈편집자주〉



吳國根
〈文理大英文科敎授〉

이제 2년만 지나면 70周年이 된다는 開校 68년을 맞게 되다니 우리가 東岳의 젊었는 學生時節에 항상 정대한 祝祭를 꿈꾸어 오던 百年祭도 멀지 않았나보다.

우리 學校의 자랑거리를 들라면 누구나 서슴치 않고 서울市內에서 제일 좋다는 (實際로도 좋



崔世和
〈師大國敎科敎授〉

우리 「東國」이 올해로 개교68주년을 맞았다。이 회갑에 8년을 더한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나라 大學史에서 볼때 분명히 자랑할만한 年輪이며, 그동안 몇 차례의 難境과 汪餘曲折을 거쳐 「明進」에서 오늘의 「東國대학교」로 성장·발전한點 더하여 東國인으로서 경의와 祝賀를 아껴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東國」의 좌표에서 놀長足의 발전과 교세의 伸長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이는 68년이란 연륜에비해 그발전템포가 느리다 있음을 말할것도 없다。우리 東國인은 과거에 대하여 誰從誰舍함이 없이 현재의 「東國」의 발전을위하여 일치단결해 그 난관을 극복하고 재단의 모체인 宗國과의 협동·화합이 「東國」의 발전의 關鍵임을 재인식하고 불교의 淨財를모아 「東國」을 창립한 대덕들의 거룩한 이 념을 계승하여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해야할 것이다。많은 동국인들의 이런 생각이 그들의 偏狹한 「我執」일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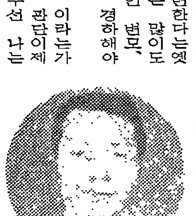
이러한 협조체제만 확립된다면 全동국인의 인화단결은 스스로 이루어지고, 그결속된 힘은 대학의 연구와 교수의 풍토조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의 확충과 거의 자연放置된듯한 환경미화 등의 해결은 어렵운 일이 아니며 대학의 飛躍的발전은 불을보는듯 확실하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 볼때 확실하다。사회는 풍요한가운데 개인간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메카니즘化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사랑의 자세로서 생을영위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랑은 한송이 국화꽃이 하나의 절에 모여 생명을 이어가듯 수많은 개개의 인간들이하나의 사회속에서 상생을 이루는 것이다。별개의 인격과 개성을 가꾸면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대로 라일락은 라일락대로 제각기 그 향기를 풍기며 그 해결에 앞장서 줄것을 우리는 믿는다。

開校68周年…東國人의 提言

大學周邊의 雜音을 東國音로 傳統있는 大學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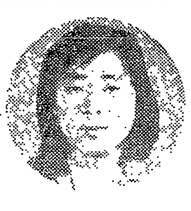


崔元
〈MBC보도제작부장·국문과卒〉

學究에 專念하는 傳統과 浪漫을

대학의 전통, 이런것들로 해석되고 있기때문이다。學校生活에서 제일 貴重한 것은 역시 면학이다。學生들이 學究에 전념할수 있도록 학교가 열심히 보장하느냐 하는것이 문제다。나는 학창생활에 있어 학업을 게을리하는 데목이다。日錄前 學生幹部를 찾아와 「C」점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第1學期 末考査에 몇과목을 가꾸던 아카시아 잎이 깡그리 없어졌다는 사실등。이런 내용으로 여러 선배를 만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학생들이 공부는 언제하고 있을까。그리고 학창생활에만 만족할 수 있는 젊은 낭만을 어느 시간에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學生들의 政治的(?) 제스추어 속에서 別個의 것으로 느끼며 저 항했다。學校, 宗敎, 關係 등을 은연중 꾀리한줄 알라。왜 그런 분제에 학생들이나 서냐는말이다。學生은 공부하고 젊은 낭만을 꿈으로 키우고 義務감을 바르게 성장하며 그과정에서 大學의 전통확립에 뜨겁게 참여해야 할 일이다。

健全한 良識절실 學生 士氣높여야



이경옥
〈師大科敎科〉

정도로 나라의 2년을 지나면서 우리 學校도 제언을 펴기에는 아직도 약간의 쑥스러운 감이있음을 부인하나, 나를 통한 나의 東國을 느낀한 평범한 國人으로써 그러나 이름 은 나름대로 이 나라 敎育에 작으나마 보탬이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敎師이고 싶다。

하고라도,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화속에서 『가장 大學다운 大學』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세가 『大學人』으로 68周年을 맞아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모두가 개탄한다。학생이나 학자간의 이해기업 없이 진정으로 즐겨 우리의내일을 위해서 아쉬다는것이다。大學生다운 전전한 良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마시오, 운동부에 의해서 연전연승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에 충실하게되고 그것은 또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인 것이다。등 국민의 자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발전과동국의 발전을 가져 올수 있는 것이다。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전체의 사회속에서 자신을 부로 돌릴수 있는것 바르이 자세인 것이다。

사랑이라 함은 어떤자기 이외의 대상을 가지기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이것은 에고이즘과는 판이하게 달라 자신을 충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위를 사랑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이것의 이

1906년, 韓國佛敎의 정신과 정통을 계승하고나아가 효과적인 新知識의 道場으로 明進學校로 설립된 본교는 中央學林 혜화전문을 거쳐 해방후 다시 東國大學으로 변모하기까지 숱한 고난과 풍파를 견디어 이제 8개학부 (교양학부포함) 40個學科와 3개의 大學院, 10개부속기관, 11個부설연구소및 부속중고, 明星女高, 金山中學, 은석국민학교등의 병설학교를 거느린 방대한 규모로 성장했다。이제 大河처럼 백발치는5천여 東國人의正義와 진리의 함성은 민족과 人類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있다。外國의 많은 大學과 결연,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는 東大。교수, 학생, 同門들의 苦言을 들어보기로 하자。 〈편집자주〉

吳國根
〈文理大英文科敎授〉

이제 2년만 지나면 70周年이 된다는 開校 68년을 맞게 되다니 우리가 東岳의 젊었는 學生時節에 항상 정대한 祝祭를 꿈꾸어 오던 百年祭도 멀지 않았나보다。

우리 學校의 자랑거리를 들라면 누구나 서슴치 않고 서울市內에서 제일 좋다는 (實際로도 좋

崔世和
〈師大國敎科敎授〉

우리 「東國」이 올해로 개교68주년을 맞았다。이 회갑에 8년을 더한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나라 大學史에서 볼때 분명히 자랑할만한 年輪이며, 그동안 몇 차례의 難境과 汪餘曲折을 거쳐 「明進」에서 오늘의 「東國대학교」로 성장·발전한點 더하여 東國인으로서 경의와 祝賀를 아껴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東國」의 좌표에서 놀長足의 발전과 교세의 伸長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이는 68년이란 연륜에비해 그발전템포가 느리다 있음을 말할것도 없다。우리 東國인은 과거에 대하여 誰從誰舍함이 없이 현재의 「東國」의 발전을위하여 일치단결해 그 난관을 극복하고 재단의 모체인 宗國과의 협동·화합이 「東國」의 발전의 關鍵임을 재인식하고 불교의 淨財를모아 「東國」을 창립한 대덕들의 거룩한 이 념을 계승하여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해야할 것이다。많은 동국인들의 이런 생각이 그들의 偏狹한 「我執」일런지?

이러한 협조체제만 확립된다면 全동국인의 인화단결은 스스로 이루어지고, 그결속된 힘은 대학의 연구와 교수의 풍토조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의 확충과 거의 자연放置된듯한 환경미화 등의 해결은 어렵운 일이 아니며 대학의 飛躍的발전은 불을보는듯 확실하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 볼때 확실하다。사회는 풍요한가운데 개인간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메카니즘化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사랑의 자세로서 생을영위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랑은 한송이 국화꽃이 하나의 절에 모여 생명을 이어가듯 수많은 개개의 인간들이하나의 사회속에서 상생을 이루는 것이다。별개의 인격과 개성을 가꾸면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대로 라일락은 라일락대로 제각기 그 향기를 풍기며 그 해결에 앞장서 줄것을 우리는 믿는

開校 68周年 紀念式거행

長期勤續·勤務 37名 表彰

8日, 中講堂서 大學發展 다짐

開校 68주년 紀念式이 8일 오전10시, 中講堂에서 거행된다. 徐繼珏총장을 위시하여 內外귀빈과 敎授·學生이 參席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될 이번 紀念式에는 本校를 위해 長期間 근속한 敎授·敎職員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기념식은 三歸依禮에 이어 告辭의 式辭, 祝辭가 있게 되며 敎授·職員가운데 20년근속자 9名, 10년근속자 26名, 10년근무자 2명등 총 37명에게 理事長표창장과 총장감사패를 수여하게 된다.

또한 참석학생들에게는 紀念品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개교기념식전에서 표창을 받게 되는 20년근속자 9명, 10년근속자 26명, 10년 근무자 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년근속자

▲李昌培(文理大學長) ▲權雲澤(農大學長) ▲金載南(英文科교수) ▲李恭洙(化學科교수) ▲申基珍(政外科교수) ▲金龍坤(農學科교수) ▲鄭鍾九(林學科교수) ▲朴성호(경리과장)

◇10년근속자

▲최찬유(화학교수) ▲鞠相範(학생처장) ▲李廷植(정외과교수) ▲金仁鴻(정외과교수) ▲崔鍾文(무역과교수) ▲朱宗桓(농경과교수) ▲李秉東(〃) ▲金昌濕(식공과교수) ▲李相祖(임학과교수) ▲宋堯仁(영문과부교수) ▲李相祖(임학과조교수) ▲李龍澤(보건소장) 이창엽(교무과장) ▲김한종(교학과장) ▲용을순(수학생관) ▲하희일(경리주임) ▲박수근(기획주임) ▲윤성백(과학관사무주임) ▲이을래(총무과) ▲하장민(교무계) ▲김근수(〃) ▲차기돈(경리과) ▲정정화(운전기사) ▲남원희(수위) ▲신형례(청소부)

◇10년근무자

▲張源宗(경제과교수) ▲박재전(학생지도부임)

主任敎授會議

經商大系列別募集

大學敎育 改革案 브리핑

商大學에 한해계열별모집을 하기위한 시안을 제출, 진지한 브리핑을 가졌다.

지난 4월21일 오전10시 徐繼珏총장실에서 열린 主任敎授會議에서 75학년도부터 1백60학점제를 1백40학점제로 하며 새로운 커리큐럼, 각단대학장, 각과주임교수 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교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李昌培교수는 명년도부터 본교에서 실시할 大學敎育改革案을 2시간여에 걸쳐 진지하게 설명했다.

大學敎育개혁내용은 ①현 1백60학점제를 1백40학점으로의 인하 ②新入生의 계열별 모집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본교에서도 지난해부터 대학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 꾸준한 연구를 해왔었다.

이날회의에서는대학교육개혁위원회가 75학년도부터 실시할 ①사회속의 대학 ②大學의 主體는 대학자체 ③여건이 조성되는데로 각 대학교별로 실시에 목적을 두고 수차에 걸쳐 大學敎育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시내 일부대학은 72학년도부터 학점인하·계열별 모집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본교에서도 지난 70년 改革方向을 ①사회속의 대학 ②大學의 主體는 대학자체 ③여건이 조성되는데로 각 대학교별로 실시에 목적을 두고 수차에 걸쳐 大學敎育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시내 일부대학은 72학년도부터 학점인하·계열별 모집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各科 주임교수회의가 7일 오전10시 徐繼珏총장실에서 열렸다.

대학교육개혁위원회연구위원장, 각단대학장, 각과주임교수 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李昌培교수는 명년도부터 본교에서 실시할 大學敎育改革案을 2시간여에 걸쳐 진지하게 설명했다.

大學敎育개혁내용은 ①현 1백60학점제를 1백40학점으로의 인하 ②新入生의 계열별 모집 ③취업확대및學問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副敷攻制의 실시등이다.

문교부는 지난 70년 改革方向을 ①사회속의 대학 ②大學의 主體는 대학자체 ③여건이 조성되는데로 각 대학교별로 실시에 목적을 두고 수차에 걸쳐 大學敎育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시내 일부대학은 72학년도부터 학점인하·계열별 모집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본교에서도 지난해부터 대학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 꾸준한 연구를 해왔었다.

이날회의에서는대학교육개혁위원회가 75학년도부터 실시할 ①사회속의 대학 ②大學의 主體는 대학자체 ③여건이 조성되는데로 각 대학교별로 실시에 목적을 두고 수차에 걸쳐 大學敎育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시내 일부대학은 72학년도부터 학점인하·계열별 모집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學界의 焦点

辛孝善

<工大食工科敎授>

오늘날 세계인구는 악 37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품은 건물량으로 40億톤이나 되고 있다. 이와같이 막대한 양의 식량이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의 半은 어느정도의 영양실조나 영양부족상태에 놓여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세계인구의 증가추세로 보아 더욱 가중될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식품공학은 현재 가장 그 영양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식품의 공급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의 여러 분야중에서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이 가지 간추려 다음에 소개코자 한다.

첫째로 인간은 인공적인 합성식품의 개발이 오늘까지 식물을 천연물로부터 얻어왔으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식량생산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오늘날 새로운 이공학적인 방법의 하여 식량을 생산하려함은 인류에게 있어 다음에 해결을 위한 연구가 여러가지 시도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생각되는 단백질을 이용한 미생물을 들수있다. 이른바 單細胞단백질(single cell protein, SCP)이라는 이들이 생산은 Nagel에 의하면 1980년에 炭化水素로부터 유지물질은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이점이 있으며, 이것은 酵母단백질(yeast proteins), 곰팡이단백질(fungi proteins), 細菌단백질(bacterial proteins), 藻類단백질(algal proteins) 등 이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藻類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미생물은 과거에는 주로 木材加水分解物(wood hydrolysates), 澱粉을 추출하고 남은 廢液(sulfite waste liquors)등 炭水化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石油화합물로 부터 생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酵母는 石油를 비롯한 식용 미생물에 의한 石油탈랍 및 脫硫 등 石油精製過程에서 얻어지는 n-paraffins, 또는 重油(heavy oil) 등과 같은 石油화합물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같이 석유에서 얻어지는 식용미생물에는 酵母단백질이라 부르고 있다. 이 石油단백질은 그 단백질의 質과 量에 있어 다른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석유에서 배양한 酵母단백질은 牛乳, 鷄卵, 魚肉 등 동물성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酵母는 다른 곰팡이나 효모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그단백질의 質도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석유단백질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이다.

石油의 생산은 1980년에 Nagel에 의하면 炭化水素로부터 유지물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이점이 있으며, 이것은 酵母단백질(yeast proteins), 곰팡이단백질(fungi proteins), 細菌단백질(bacterial proteins), 藻類단백질(algal proteins) 등 이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藻類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미생물은 과거에는 주로 木材加水分解物(wood hydrolysates), 澱粉을 추출하고 남은 廢液(sulfite waste liquors)등 炭水化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石油화합물로 부터 생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酵母는 石油를 비롯한 식용 미생물에 의한 石油탈랍 및 脫硫 등 石油精製過程에서 얻어지는 n-paraffins, 또는 重油(heavy oil) 등과 같은 石油화합물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같이 석유에서 얻어지는 식용미생물에는 酵母단백질이라 부르고 있다. 이 石油단백질은 그 단백질의 質과 量에 있어 다른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석유에서 배양한 酵母단백질은 牛乳, 鷄卵, 魚肉 등 동물성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酵母는 다른 곰팡이나 효모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그단백질의 質도 우수하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석유에서 배양한 酵母단백질은 牛乳, 鷄卵, 魚肉 등 동물성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酵母는 다른 곰팡이나 효모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그단백질의 質도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석유단백질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이다.

理工學的食品開發

資源開發·營養改善이 課題

최근 動脈硬化症, 腦溢血, 心臟病과같은 成人病이 격증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된 원인은 脂肪의 過大한 섭취와 不飽和脂肪酸의 할당이 많은 飽和脂肪酸의 취에 基因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생물에 의하여 油脂를 생산할경우 必須脂肪酸(linolic acid, F)이 많이 함유된 油脂를 합성한다면 F)이 많이 함유된 油脂를 합성한다면 인구증가에 대처하는 길이 될것이다.

또한 油脂資源의 부족에 의한 油脂의 價格상승에 따른 油脂生産미생물의 탐색, 油脂의 蓄積메카니즘등에 관한 연구로 油脂生産미생물의 蓄積條件, 油脂의 構造 등에 관한 연구가 초점이 될것이다.

또한 廢棄資源의 효과적인 이용개발이다. 이에관한 연구로는 絲藥단백질濃縮物(leaf protein concentrates, LPC), 魚類단백질濃縮物(fish protein concentrates, FPC), 人造肉, 複合粉(composite flour) 등이 있다. LPC는 식물의 絲藥을 마쇄하여 필프狀으로 한후 그속의 단백질을 추출하여 그 추출액을 가열하여 응고시켜 단백질을 분리하여 만든것이다. 이것은 60~7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있으며, 그 품질도 우수하여 밀가루등의 곡류에 혼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이것은 또는 重油(heavy oil) 등과 같은 石油화합물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같이 석유에서 얻어지는 식용미생물에는 酵母단백질이라 부르고 있다. 이 石油단백질은 그 단백질의 質과 量에 있어 다른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석유에서 배양한 酵母단백질은 牛乳, 鷄卵, 魚肉 등 동물성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酵母는 다른 곰팡이나 효모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그단백질의 質도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석유단백질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이다.

石油의 생산은 1980년에 Nagel에 의하면 炭化水素로부터 유지물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이점이 있으며, 이것은 酵母단백질(yeast proteins), 곰팡이단백질(fungi proteins), 細菌단백질(bacterial proteins), 藻類단백질(algal proteins) 등 이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藻類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미생물은 과거에는 주로 木材加水分解物(wood hydrolysates), 澱粉을 추출하고 남은 廢液(sulfite waste liquors)등 炭水化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石油화합물로 부터 생산되고 있다. 이중에서 酵母는 石油를 비롯한 식용 미생물에 의한 石油탈랍 및 脫硫 등 石油精製過程에서 얻어지는 n-paraffins, 또는 重油(heavy oil) 등과 같은 石油화합물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같이 석유에서 얻어지는 식용미생물에는 酵母단백질이라 부르고 있다. 이 石油단백질은 그 단백질의 質과 量에 있어 다른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석유에서 배양한 酵母단백질은 牛乳, 鷄卵, 魚肉 등 동물성 단백질에 비교할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酵母는 다른 곰팡이나 효모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많으며, 그단백질의 質도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석유단백질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이다.

東國祝典 9日開幕

例年보다 다채로운 計劃

第15回 東國祝典이 9일부터 11일까지화려하게펼쳐진다. 開校68周年을 紀念하기위한 이번 祝典을 앞두고, 總學生會는 祝典企劃委員會를 위촉, 구성하는한편 축전스케줄을 확정 게시하는 동 5월의 신록위에 수놓을 다채로운 行事에 萬全을 기하고 있다. 「미스동국」선발대회는 부득이한사정으로 내년까지 연기되고 「미스총각」선발대회로 대치되었다.

9일 오전10시30분「祝典선언」을 스타트로하여 3일간의 祝典行事는 속속진행된다.

이번 축전일정에는 학술토론대회를 비롯한 학술행사가 예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스총각」선발, 농악의 향연등 다채로운 오락스케줄도 이색적이다.

제15회 東國祝典 日程을 다음과 같다.

◇9日

▲10시10분~11시〉祝典선언 (중앙당·촌학생회)

▲11시30분~12시30분〉씨름개막식 (중앙당·총학생회)

▲12시30분~13시30분〉연무대회 (중앙당·선무부)

▲13시~13시30분〉農樂경연 (佛像앞·농연)

▲13시~15시30분〉미스총각선발 (중앙당·총학생회)

▲15시30분~17시30분〉東國人올스타쇼 (중앙당·남송국)

▲18시~20시〉4학년 카니발 (학생회관6층·총학생회)

◇10日

▲11시~15시〉바둑대회 (교수휴게실·農研)

▲13시~15시〉學術討論大會 (工大제미나실·학술연구부)

▲13시~14시〉佛敎合唱 (中講堂·佛敎合唱團)

▲14시~15시30분〉연극 (중앙당·가정학회)

▲15시30분~17시30분〉민속예술제 (중앙당·총학생회)

◇11日

▲13시~15시〉스피치대회 (공대제미나실)

▲13시~16시30분〉졸업이 종교관 (F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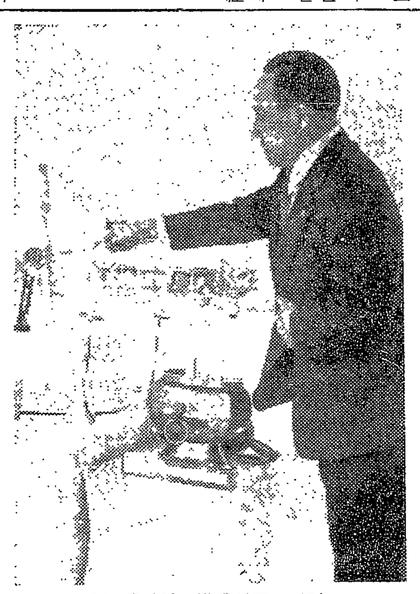
▲16시30분~22시〉록력카니발 (중앙당·운동장)

安漢泳君등 3名

레슬링國家代表로

第7回 아시아경기대회파견 레슬링선수 최종선발전에서 本校에서는 李貞昌(化工·1)君, 安漢泳(體敎·4), 柳在權(行政大學院)君등 3名이 선발되었다.

지난 4月26日 龍文高체육관에서 열린 최종선발전에서는 1·2차 선발전의 1·2位선수가 참가, 이란行 티켓을 걸고 격돌했는데 본교에서는 자유형 쥬니어를 담당한 李貞昌君과 그레꼬로만형 밴덤급의 安漢泳君이 우승, 최종엔트리로선발되었으며 行政大學院에在學中인 柳在權君(자유형·헬터급) 도우승을차지했다.



◇徐總長이 濯佛하고 있다

各써클 祝典行事로

賣店開設로 防衛誠金도

開校 제68주년을 맞이하여 祝典期間인 9日부터 11日까지 3일간을 써클에서는 祝典行事로 각써클에서 賣店을 개설한다.

◇KCCID (會長=장석진·貿易2)=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분수대및우체국앞에서 「살롱KCC」를 개설한다.

教生實習

6日부터 4週間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敎生실습이 지난6일부터 6週간 실시되고있다.

실습대상학교는 보면,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拜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문리대 부속고등학교, 공과대 부속공업고등학교, 농과대 부속농업고등학교이다.

담당교수는 敎育學部 崔奎夏교수, 金雲泰교수, 崔載九교수, 金容燮교수, 李光奎교수, 李相佰교수, 李相祖교수, 李龍範교수, 李相殷

東國人의 祝祭參與度

총학생회 公報部 調査

○ 불공과 환호속에 젊음이 타오르고 순수에로의 목마른 외침이 캠퍼스를 덮는 5월의 축제—. 학문과 예술의 누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룩하는 대학의 축제속에 내일의 새로운을 재창조 해야된다는 사명감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 전통속에 다. 大學생활중 축제만큼 화려한것도 없고 축제만을 기다려 지는 것도 없다. 오는에9일부터 3일간 배울어지는 제15회 동국축전을맞아 총학생회 공보부의 협조로 본교생의 축제관심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2학년이상 총2백10명(문學生133명 여학생77명, 2학년 106명, 3학년68명 4학년 36명)을 각학년별로 문과 이과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남녀별로 분류하였다. (편집자주)

祝祭 無用論者 32%나

「천편」 일률적 年例行事에 실증 52%

安易한企劃으로 만족못주는祝祭

요즘 大學의 祝祭는 大學人들의 學問的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나 옥구불만을 잠시나마 해소하는데도 미흡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압도적인 대답이다.

進取的 가치추구를 갈망하는 大學人의 祭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같은 大學祝祭에 대한 평가는 축제가 대부분 傳來의 구태의연한 行事가 중복되고 있고, 즉흥기획에 의해 拙速운영되고 있으며, 始와 終이 다르다는데 크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祝祭참여도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表1)

이것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요즈음의 祝祭를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 사미적으로 축제자체에 대한 매력을 버리지 못하는 (人文학과에서 60%) 반면 축제행사 종목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명차례의 축제참가의 노력(?)한 評價로 보여진다.

有益하기는하나 新鮮美는결여

우선 祝祭가 『大學人에게 어떤 계기를 줄수있을까』하는 질문에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祝祭에 대한 關心度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심이 크다」(22%) 「막연한 관심이다」(60%)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중의 일부가 祝祭를 『大學에서 축제가 있을 때 이외에 결국 32%는 축제만큼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娛樂行事에는 理科生이더관심

다음으로 祝祭가 『大學人에게 어떤 계기를 줄수있을까』하는 질문에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祝祭에 대한 關心度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심이 크다」(22%) 「막연한 관심이다」(60%)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중의 일부가 祝祭를 『大學人에게 어떤 계기를 줄수있을까』하는 질문에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祝祭에 대한 關心度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심이 크다」(22%) 「막연한 관심이다」(60%)로 나타났다. 특히 法政大學 학생들중의 압도적인 대답이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祝祭에 대한 關心度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심이 크다」(22%) 「막연한 관심이다」(60%)로 나타났다. 특히 法政大學 학생들중의 압도적인 대답이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娛樂行事에는 理科生이더관심

다음으로 祝祭가 『大學人에게 어떤 계기를 줄수있을까』하는 질문에 「젊은 知性의 발랄하고 유일한 行事」라고 답한 학생이 66%, 「구태의연체적 新鮮美가 결여된 年例行事」라고 답한 학생도 적지않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祝祭에 대한 關心度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심이 크다」(22%) 「막연한 관심이다」(60%)로 나타났다. 특히 法政大學 학생들중의 압도적인 대답이